

목회상담을 통한 청소년 영성교육에 관한 연구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사례를 중심으로-

하희승 겸임교수

(Ph. D. Cand., 안양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성경적 상담기법을 사용한 청소년 소그룹의 영성교육에 관한 것이다. 물질주의가 팽배하고 한국교회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내일의 주역인 청소년을 올바르게 신앙 지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목회에서 상담이 차지하는 역할을 조명하고 이의 두드러진 특징과 과제들을 기술한다. 상담의 대상인 청소년의 특성, 가정, 학교, 사회, 교회 등의 환경적 특성을 알아보고 청소년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알아본다. 이어서 청소년의 영성교육방법을 상담기법을 통하여 조명한다. 이 상담은 유기적으로 이뤄지는데 청소년 본인의 상담은 물론, 청소년이 속한 가정의 가정상담 및 격려를 위한 문자보내기, 교환편지를 이용한 유기적 상담이 진행되도록 한다. 이어서 청소년이 문제를 직면하고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이를 위한 성경적 상담의 방법 L.K.S.D.(Love, Know, Speak, Do)를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청소년의 마음의 변화를 시도하는 영성교육 방법과 성공적인 상담사례를 예시한다.

중심단어 : 성경적 목회상담, 유기적 상담, 성경적 상담방법, 영성교육, 청소년 상담.

I. 여는 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급속도로 발전되어 가는 기계문명과 더불어 비인간화와 소외의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는 과학적 물질문명에 대한 우선적 관점과 생명 경시 풍조에서 파생된 오도된 가치체계의 결과이다.¹⁾ 연예인들의 자살과 이를 모방하는 행태가 매스컴을 장식하고 소위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는 요즈음, 영성에 대해 주목해 본다. 효율성을 지고의 가치로 여기며 자연을 훼손하고 낭비하는 현 세대에 기독교의 영성은 빨간 정시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천천히, 천천히 속도를 줄여서 살아가라고 한다.

본고는 이러한 현대 문명 속의 가장 큰 피해자 중의 하나인 청소년들에 주목하고 이들이 성경적 상담을 통해 영성을 회복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풍성한 삶을 누림으로 교회가 살아나는 희망의 미래를 다루고자 한다.

교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당면한 문제점을 주목하고 청소년의 신앙 지도하는 방법으로서 성경적 상담이 가장 적합한 방법 중의 하나이며 성경적 상담을 통한 유기적 상담의 관점에서 청소년 영성지도의 일반적인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재의 방법은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을 적용한다. 이 방법은 청소년의 마음의 변화에 초점이 모아지며,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는 바로 성령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회복을 통해서 변화된 청소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통전적 영성의 삶을 살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료로서 첫째로는 영성교육에 관한 문헌, 두 번째로 청소년 발달이론서, 세 번째는 기독교 교육에 관한 자료들, 네 번째는 성경적 상담에 대한 문헌들²⁾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임상 상담은 본인의 사역의 현장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II. 펴는 글

1. 영성교육

기독교 교육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교육은 총체적 영성교육이다. 여기서 총체적 영성교육이란 우리 인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힘을 자각하고 그 생명의 힘의 인도에 따라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교육이라 하겠다. 다시 말한다면, 영성이란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력이고, 이런 생명력을 지닌 인간은 하나님과의 만남, 나를 포함한 인간들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세계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깨닫고 그분의 영을 지닌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지니고 살도록 이끄는 것이 총체적 영성교육인 것이다.³⁾ 또한 총체적 영성이란 종교와 삶이 이분화 되지 않는 것과 함께 인간의 지(知)·정(精)·의(意)가 조화롭게 성숙하는 것으로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하나님의 경건한 모습을 되찾는 것이라 하겠다. 또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보다 성숙된 영성의 발달에 관해서 지금까지의 '훈련'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기보다는 총체적 영적성숙을 꾀한다는 의미에서 '교육'으로서의 '영성교육'이 필요하다. 사회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치체계로서의 영성함양을 교육목적으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회복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아발견, 생명을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웃사랑의 삶의 모습, 생명체의 지속적인 삶을 위한 자연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실천을 내포한다. 그리고 영성교육의 방법으로 기도, 예배, 말씀 묵상 등의 신앙훈련과 함께 생활교육을 통한 영적 성숙의 방법이 있다.

2. 청소년, 목회 상담적 접근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교육, 선포, 치유의 삼중적 사역으로 묘사된다(마 4:23). 교회는 이러한 원리에 따르는 상담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 성경이 교훈하는 상담의 원리는 상담자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상담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⁴⁾ 목회자의 사역이 바로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도록 돕는 필요성이 상존한다. 설교가 대중적이며 보다 예방적인 반면, 상담은 주로 개인적이며 치료적이다. 이러한 장(場)으로서 교회의 청소년 상담은 중요하며 그런 점에서 목회자는 상담가로서의 필요한 기술들을 익히는 것이 요구된다. 목회자는 성경에 근거한 목회철학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상담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피상담자와의 관계에서 볼 때에, 불신자일 경우는 복음전파의 기회가 되는 것이며, 신자에게는 제자양육이나 성화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상담을 통하여 이러한 상담의 과제가 상담의 목적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목회자가 상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는 상담학의 이론에 따라 제각기 다를 것이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기독교 상담이라 하면서도 일반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을 기독교의 용어를 사용하여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1) 목회상담학의 신학적 배경

16세기 청교도들의 중심사상은 철저한 칼빈주의와 경건주의로서 그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과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이성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목회상담학이 심리치료학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세속화되었을 때 몇몇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는데,⁵⁾ 제이 아담스(Jay E. Adams)는 특별히 성경적상담학을 발전시켜서 C. C. E. F.(Christian Counseling and Educational Foundation)라는 기관을 설립하였고, 지금은 아담스의 이론을 보완하고 새롭게 발전시켜 상담학의 명칭도 'Nouthetic Counseling'에서 'Biblical Counseling'으로 바뀌게 되었다.⁶⁾

이렇게 성경적 상담(Biblical Counseling)은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평신도 기독교상담 전문가들을 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된 통합주의 기독교 상담에 대항하여 심리치료를 배제한 목회자들을 주축으로 한 교회 중심적, 성경 중심적 상담 운동이었다. 그러므로 목회상담학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 상담학이 되어야 하며 성경적 상담학은 개혁주의 신학에 근본을 두고 있다.

2) 청소년의 일반적 환경적 특성

청소년기는 사춘기로부터 시작되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소녀들의

경우는 만 12세에서 17세이고 소년들의 경우는 13-4세에서 18세 사이로 볼 수 있다. 이시기에는 호르몬 계통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다양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한다. 사회적으로 또래 집단의 사회적, 도덕적 가치들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학습 받은 가치관과 대립하여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빈번한 갈등들이 발생한다. 심리적으로도 감수성이 극도로 예민해지며 새로운 충동들이 그들을 사로잡는다. 또 그들은 "내가 누구인가?" 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위기의식을 갖는다. 이들은 자기가 자신을 생각하는 모습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기의 모습이 차이가 날 때 불안과 긴장을 느낀다. 또한 청소년이 되면서 동성이나 이성과 새로운 친구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런 관계를 맺고 또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이들에게 밀어닥치는 신체적인 변화와 이성간의 욕구, 친구관계와 부모에의 의존과 독립 사이의 갈등, 여기에도 입시라는 엄청난 부담을 받아야 하는, 견디어내기 힘든 시기를 갖고 있는 세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의 가정, 학교, 사회, 교회 환경을 살펴보자.

(1) 가정환경

가정은 사람이 출생하면서 최초로 갖는 인간관계이고 가장 기본적인 사회 단체로서 범죄 또는 비행의 중요한 환경인자이다. 가정은 가족을 구성원으로 애정과 존경과 신뢰를 정신적인 요소로 상호 협조하여 살아가는 혈연적 공동 단체이다. 또 가정은 자녀들의 인격을 구축해 주고 세상을 살아 나가는 지혜를 습득시켜 주는 사회화 기관이자 좋은 학교이고, 부모는 교사 중의 교사이다. 지적, 정서적 결함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대개가 그들의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부모의 사랑이 결핍된 예가 많다. 가정이 그 기능을 상실하면 가정 구성원은 대체적으로 주체의식의 결핍현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가정이 건강할 때 건전한 주체성이 형성되어 올바른 시민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⁷⁾

(2) 학교환경

학교도 가정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곳으로 학령기 아동은 취학(就學)하면서 종래 사회성의 발달이 적은 가정이나 혈

연적 단체 생활에서부터 동년배와의 공동단체로 들어가 비로소 사회의 일원이 된다. 그런데 학교가 청소년을 위하여 사회적, 문화적 활동과 삶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창조의 능력을 배양시켜 주어야 할 곳이나, 오늘날의 학교 교육은 건전한 전인적 인격을 길러내지 못하고 단지 상급학교 진학만을 위한 학교 교육이 되므로 문제는 심각하다. 학교환경에 장애가 있으면 학생의 사회적 태도, 가치관, 의지 등의 발달에 지장을 가져오게 되어 반항적 또는 도피적 태도, 권위의 경시, 비행집단에의 동일화, 가출 등 위험한 상태가 일어난다. 학교에의 적응 장애로는 성적불량, 학업태만, 무단결석 더 나아가 학원폭력에 시달리며, 왕따까지 당하는 위험한 현실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적절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미숙한 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은 심각하게 자긍심을 손상케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3) 사회 환경

사회는 아직 미숙한 청소년이 성인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내딛는 새로운 환경이다. 현대 사회가 산업화, 공업화, 정보화로 발전되어 감에 따라서 경제 성장과 함께 소비성향도 높아짐에 따라 성인들의 부도덕하고 퇴폐적인 행위의 난무는 청소년 비행의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청소년들은 쇼와 대중가요, 폭력 및 범죄 영화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만화와 잡지 등에서 음란과 허영심을 배운다. 그런 점에서 조직폭력배를 미화하고 그러한 스토리에 편승하여 흥행을 노리는 영화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⁸⁾ 또한 사회가 급속도로 발달되면서 전과는 다른 양상의 청소년 문제의 양적 증가는 물론 내용적으로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전에 부모세대가 누리지 못하던 것을 누리면서도, 전 세대가 가졌던 고유한 가치관들이 붕괴되면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지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계층으로 구성된 오늘의 사회 현실에서 직업 및 생활수준의 심한 격차에서 오는 심리적 괴리감과 다른 계층에 속하지 못하게 되는 사회적 소외현상도 청소년들에게 좌절감, 절망감을 가지게 해 미래의 생활을 포기하게 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회변동 요인이 다양화되므로 인구이동, 거주지 지역 주민과의 이질성, 연대의식이 결여된 개인주의의 팽배 등 수 많은 요인들이 사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가지는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4) 교회환경

청소년기는 자기결단, 태도, 신조, 자세 등에 대한 책임인식으로 이와 관련된 신앙적 특성들이 나타나며, 자신의 주체성이나 견해의 내면적 비판에 대한 반성을 유도하는 작용을 나타내는 특징을 보인다. 아동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체성과 신앙적 확신성을 유지하던 자아가 개별적, 반성적 신앙의 단계에 이르러 자신의 정체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종합·관습적 신앙에서 개별·반성적 신앙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표출되는 특징으로는 자신이 결정한 일이나 사고에 대한 책임성이 생긴다. 이러한 청소년 시기에 보이는 회심의 현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 영국 톰 리이즈(Tom Rees)와 미국 리오넬 헌트(Lionel A. Hunt)의 통계조사

| | |
|----------------|-----|
| 14세 이전에 회심한 사람 | 75% |
| 14-21세에 회심한 사람 | 20% |
| 21세 이후 회심한 사람 | 5% |

대상 : 영국 그리스도인

| | |
|----------------|-----|
| 4세 미만 회심한 사람 | 1% |
| 4-15세에 회심한 사람 | 85% |
| 15-30세에 회심한 사람 | 10% |
| 30세 이후에 회심한 사람 | 4% |

대상 : 미국 내 그리스도인

한국에서도 그리스도도를 영접한 응답자들에게 그 시기를 묻은 결과, 개신교인은 학생시기에 49.2%로서 학생시기가 신앙성장의 중요한 계기가 됨을 보여준다. 영접 시기는 고등학교 16.8%, 중학교 14.2%, 초등학교 또는 그 이하에서 11.6% 등 학생의 때 중에서도 특히 중, 고등학교 시절에 영접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¹⁰⁾

청소년의 현재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교회교육이 학교교육을 닮아 가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은 자신의 결단보다도 기성세대가 정해놓은 형식을 반강제적으로 수납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체로 많다. 특히 입시위주의 사회체제로 인해서, 교회에서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할 기회는 점차로 적어지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중·고등부라고 부름으로써 같은 나이의 근로 청소년들은 교회에 참여할 자리가 없게 된 것도 청소년들을 제한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다. 이처럼 교회는 그 본질과 사명에서 이탈하여 제도의 모순, 구조의 역기능 현상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에게 깊은 소외의 장소로 되어 가고 있다. 이밖에도 청소년 교역자들의 잦은 교체로 교육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며 일관된 교육체계를 유지가 어려워진다. 또 다른 문제는 교사의 교육경력 현황조사에 의하면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한국교회

의 51%나 된다. 경험이 부족한 교사들이 한국교회 청소년 교육 현장에 채워져 있다는 사실은 청소년교육의 근본문제에 해당되는 중요 사안이다.

2) 청소년의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대로 청소년은 “질풍노도의 시기”라 지칭되기도 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면서 가출, 따돌림, 폭력행위, 자살 등의 일탈행동과 또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기의 약물남용 및 중독, 급격한 광통신망의 발달로 야기된 부정적 폐해인 사이버 중독 등으로 위협받는다. 그리고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겪는 개인적 측면의 열등감,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회문제중의 하나인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불안, 고독, 우울, 자기비하, 자아 정체감 형성의 장애 등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장애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청소년을 유기적 상담을 통한 청소년 사역의 일반적인 상담사역을 통하여 적극도울 수 있다. 다음은 이에 대한 교육학적 접근과 상담학적 접근을 통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3. 유기적 상담을 통한 청소년 사역의 일반적 고찰

청소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신앙지도의 방안으로 교육학적 접근과 상담학적 접근이 있겠다. 전통적 기독교 교육학적 접근만으로는 역부족인 현대의 청소년의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유기적 상담을 통한 청소년의 가정상담과, 격려 상담을 청소년사역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1) 유기적 상담과 청소년 사역

여기서 “유기적(有機的)”이라는 용어는 ‘유기체처럼 많은 부분이 모여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그 각 부분 사이에 긴밀한 통일이 있어,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청소년의 상담에 있어 청소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과 친구 또래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진행되는 상담을 의도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청소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건전한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며 신앙을 통한 교회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신앙교육만으로 역부족인 이 현실을 볼 때 이를 보완할 최적의 대안이 청소년 유기적 상담임이 드러난다. 이에 근거해서 가정상

담, 격려 상담을 기술하고자 한다.

(1) 가정상담

① 청소년과 가정

가정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현재, 청소년들은 인격형성의 불화를 겪고 있다. 부모의 권위가 축소되고 자녀의 독립심이 커지는 청소년기에서 청소년은 부모, 자녀, 형제 관계의 제 1차 집단인 가정으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하며, 제 2차 집단인 학교나 사회의 가치체계, 생활규범을 몸에 익혀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주어진다. 이러한 때 가정은 청소년들에게 심을 제공해야 하고 올바른 인격과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집단인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정립하게 하고 자녀와 부모가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를 갖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해해야만 청소년기의 자녀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다.

② 청소년 가정상담의 필요성

영국의 교육학자 니일(Neil)은 “문제의 청소년은 없다. 다만 문제의 어른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청소년 문제의 가정적인 요인은 첫째, 핵가족화로 인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 감소, 부모의 권위 상실, 둘째,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한 가정교육의 기회 약화, 셋째, 지나친 부모들의 출세 지향적 교육의 강요와 파생되는 갈등 요인 심화, 넷째, 저소득, 결손, 별거 등, 문제 가정의 증가가 지적된다.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문제의 방어기구는 가정이다. 그리스도를 중심한 신앙가정의 형성과 상담은 청소년의 문제의 파도에서 우리를 지키는 방파제 구실을 하기에 충분하다.¹¹⁾

③ 청소년 가정상담의 방법

바른 교회론의 정립은 가정이 모여 교회가 이루어져야 하며, 바른 교회의 전제는 바른 가정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은 가정교회의 형태로 발전 되어야 한다. 오늘날 교회가 청소년을 위해 가정에 권장할 만한 것은 가정상담을 통한 성경적 가르침과 가정예배를 통한 가정교회의 회복에 있다 하겠다. 상담의 접근은 예배 중 자녀의 기도를 통한 자녀의 문제 읽기, 대화를 통한 문제 알기, 질문받기를 통한 문제의 확인과 더불어 상담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자연스럽다. 교회는 가정과 연계하여 가정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여기에 사용되는 신앙지도의 방법론은 성경적 상담 방법을 적용한 유기적 상담이다.

자녀교육은 한 영혼을 바르게 하도록 하나님께 책임을 맡고 위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자녀교육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위한 사랑과 헌신이 필요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의 대행자인 아버지와 사랑의 대표적 대행자인 어머니를 통해서 유의 적절히 드러낼 때 효과적이다.

④ 청소년 가정상담과 가정예배

가정교회에서의 최우선 핵심은 가정예배에 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임재, 교통, 거룩, 반응, 평화, 목적의 여섯 가지 활동을 포함한다. 영적 삶의 훈련에는 말씀 읽기, 기도, 사랑, 신앙, 순종 등이 있다. 예배 태도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영적인 삶으로서 정신 및 신체적인 삶을 주장하게 된다.

가정예배에서 말씀의 증거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내용의 중심적 초점은 성경에 두어야 한다. 예배의 방식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가족구성원 모두의 말씀으로 내면화 시키는데 있다. 특히 가정에 부여된 성경교육의 사명을 이 시간을 통하여 수행 될 수 있다. 가정예배는 가족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열정이 솟아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가르치는 가정예배는 가족들의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과 가족들 간의 결속과 유대를 강하게 하여준다. 그러므로 가정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찾아 볼 수 있어야 한다.

(2) 격려 상담

자존감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있어서 격려는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권면과 위로는 교회 청소년들에게 크나큰 힘이 될 수밖에 없다.¹²⁾

① 문자(Text) 보내기

우리는 통상 격려를 말할 때, 지금까지 말로 전달하는 것을 위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 오늘날의 시대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며, 정보통신부의 통계가 입증하듯 이제는 휴대전화의 용도가 통화보다는 문자가 더 많은 시대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말보다는 문자로 말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글로 쓴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다양한 느낌들을 감지하도록 돕는다. 청소년들은 혼자 깊이 생각하면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으며, 당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자신의 긍정적인 자질과 문제해결 방법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교환편지

청소년들이 자신을 표현하도록 돕는 활동 중의 하나는 일과표를 기록하는 것인데 이는 “상황과 자기 자신”이라는 두 개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다. ‘상황’ 부분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시발점은 아니었으나 자기에게 일어난 최소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설명을 기록한다. 청소년은 이에 대한 자기의 반응과 이 반응에 대한 느낌을 기술한다. ‘자기 자신’에 관한 부분에서는 자기가 시작 또는 참여하려고 선택한 행위나 행동들, 그 이유, 에 대한 반응 및 느낌을 기록한다. 이러한 일과표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나면 청소년들은 ‘느낌 연습책(feeling workbook)’을 만들 수 있다. 느낌 연습책을 만드는 목적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어떻게 감정이 행동을 하게 만드는지를 알게 하는데 있다. 청소년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와 같은 간단하나 반성적인 질문을 하며 그 답을 느낌 연습책에 적는 것이다.

이렇게 받은 교환편지노트를 본인이 집으로 가지고 가서 한 주간 동안 틈틈이 교사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쓰여진 교환 편지노트는 다음 주에 교사에게 전달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교환편지노트를 격주로 교환한다. 이 교환 편지노트를 이용하여 교사와 회원 간의 대화의 통로가 되어서 지속적인 상담시스템으로 구축되어 학생들의 위기상담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청소년의 주변 환경, 학교, 사회, 교회를 통한 유기적 상담은 성경적 토대위에 구축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이어서 이러한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구체적 실행 방법을 알아보자.

4. 성경적 상담의 접근 원리와 방법론

1) 성경적 상담이란?

오늘날 유행되고 있는 ‘기독교 상담’ 이라고 불리는 이론들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상담 이론을 근거한다. 이러한 이론들 가운데는 성경과 심리학에 대해서 ‘분리주의적 입장’ 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는 성경과 심리학을 혼합하는 ‘절충 주의적 방법’ 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통찰과 심리학의 지혜가 담겨있는 성경 자료들을 심리학에 통합함으로써 효과적인 ‘기독교적 방법’ 을 찾으려고 한다. 그들은 신학과 심리학의 원리들을 제휴시키려고 노력하고 두 영역을 혼합하여 조화된 원리를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보다 심리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여과가 어렵게 되고, 결국 심리학이 성경위에 위치하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¹³⁾

진정한 ‘기독교 상담’ 은 심리학적 용어나 체험에 성경 구절을 첨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모든 상담 이론의 근거로 삼고,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 은 성경의 원리와 방법을 토대로 하며 신학적 바탕이 바로 형성되는데서 가능하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 상담’ 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상담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기독교 상담’ 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것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기독교 상담’ 을 ‘성경적 상담’ 이라고 부르는 것이다.¹⁴⁾

2) 성경적 상담의 목적

대부분의 상담이론에 있어서 상담의 목적은 피상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자신감을 북돋아 주는데 있다. 그러나 성경적 상담의 목적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광’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경적 상담은 개혁주의 신학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¹⁵⁾ 성경적 상담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 이다.¹⁶⁾ 그러므로 성경적 상담의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는데 있다.¹⁷⁾ 성경적 상담은 청소년이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가지며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변화를 체험하며, 하나

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계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특징을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하면,¹⁸⁾ 첫째,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 둘째, 말씀의 가르침과 성령의 역사로 참된 변화가 온다. 셋째, 인간은 죄인이며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넷째, 상담의 과정도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 하며, 상담의 방법도 성경적이어야 한다.

3) 성경적 상담의 원리

성경적인 상담은 성경적인 전제와 원리를 따라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다.¹⁹⁾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둘째,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했다. 셋째,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다. 넷째, 상담의 주요 도구는 성경이다. 다섯째, 성경적 상담자의 본 보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섯째, 인간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존재이다. 일곱째, 진정한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 원리들은 특히 인본주의 상담과는 확연히 구별해야 하는 청소년 상담의 기본개념이자, 전제되어야 할 핵심적 요소로 작용한다. 이점은 문제의 청소년을 신앙지도 하는데 있어서 폭넓은 이론적 배경을 가질 뿐 아니라 명료하고도 확고한 원리로서 구체적인 실재의 접근을 모색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을 변화시켜가는 상담 단계로서의 폭넓은 통찰을 제공하여 주는 핵심원리이다.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는 일반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의 이론에다 성경 구절이나 기독교 용어를 도금하여 '기독교 상담' 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콜린스는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분별하는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기본 전제가 무엇인가? 둘째, 상담목적이 무엇인가? 셋째, 상담이론의 배경이 무엇인가? 넷째, 상담방법이 실제적인가? 다섯째, 상담자가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가? 여섯째, 문제되는 요소는 없는가? 일곱째, 상담의 결과가 있는가? 이다.

다음은 성경적 상담의 기본원리를 실제 상담에 적용하는 과정으로 Love, Know, Speak, Do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4) 성경적 상담의 방법

성경적 상담의 방법으로 'Love, Know, Speak, Do Model'의 방법을 사용한

다. 이 방법은 성경이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상담 방법론을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이 4가지 기능에는 어떤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담현장에서는 이 모두를 동시에 사용한다.²⁰⁾ Love단계에서는 그리스도와와의 사랑의 접근을 통해 내담자와의 신뢰의 관계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Know는 “피상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피상담자의 마음을 향하여 움직이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Understand: Gather data which move toward the heart)을 목표로 한다.²¹⁾ Do의 단계는 피상담자로 하여금 “매일의 삶에서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안(진리)을 적용하는 행동을 실제로 취하도록 하는 것”(Action: Apply God's agenda(truth) for change to everyday life)을 목표로 한다.²²⁾

이상의 변화에 대한 성경적 상담의 모든 세부 사항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성경적 상담의 단순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성경적 상담은 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친구는 신뢰와 이해의 관계를 세운다. 친구는 나의 속사람을 알고자 한다. 즉, 친구는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친구는 내가 직시할 필요가 있는 일들을 말해줌으로써 내가 꼭 들어야 하지만 말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들을 사랑을 가지고 말해 준다, 친구는 나의 삶에 있어서 변화의 일부분이 되어 필요한 영역에서 도움을 주고, 후원해주며, 책임을 져 준다. 특히 청소년의 성경적 상담에서 필자가 고안한 ‘유기적 상담의 강점이 여기에 착안된 것이다. 성경적 상담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적 우정’이다. “사랑하라”(Love), “알라”(Know), “말하라”(Speak), “행하라”(Do) 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마 22:37-40).²³⁾

5. 성경적 상담을 통한 청소년 신앙지도 사례연구

이 논문은 성경적 상담의 내용을 자료로 삼는다. 이 자료들을 분석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청소년과 부모들을 위한 성경적 상담의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고찰한 성경적 상담의 새로운 방법, 즉 유기적 상담을 실례에 적용 한다.

1) 상담

(1) 상담대상자

자료는 5명의 학생과 7명의 학부모를 연구자가 사역하는 수원중앙장로교회의 학생과 학부모를 상담한 내용이다. 이 상담 내용은 내담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한 후 녹취하였다. 아래는 상담대상자의 프로파일이다. 상담 대상자의 프로파일은 표로 작성, 나이, 성별, 직업, 신앙생활기간, 교회직분/활동 / 증상/ 문제점들로 구분하였다. 상담은 1회 60분씩 4회 또는 그 이상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2) 상담방법

성경적 상담의 방법인 L.K.S.D.(Love, Know, Speak, Do)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Love, Know,의 단계에서는 내담자들을 이해하고, Speak, Do에서는 성경적인 원리들을 제시하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권면하였다. 주로 상담의 1, 2회는 Love, Know를, 3, 4회는 Speak, Do에 집중하였다.

① 상담 시 질문들(부모 또는 학생에게)

첫째, 생활가운데 받는 스트레스는 어떤 것이 있는가? 둘째, 이런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는가? 운동, 친구들과 만남, 영화(구체적으로). 셋째, 신앙적인 방법으로 푸는 방법은? 기도, 성경읽기, 교회 출석, 수련회 참석 등. 넷째, 신앙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다섯째, 삶에서 가장 힘들 때 느끼는 감정은? 분노, 슬픔, 절망감등.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사건 에피소드 등. 여섯째, 문제의 중압감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② 부모에게 질문들

첫째, 자녀가 받는 가장 큰 중압감은 무엇이며 어떻게 견디고 다루고 있는지? 둘째, 스트레스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스트레스를 겪는 사건이나 예를 들어 보자. 셋째, 부모로서 겪는 스트레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루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사건, 에피소드 등).

③ Speak and Do 의 단계 상담

첫째, 학생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면한 어떠한 문

제도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 한다. 하나님의 간섭과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겪는 문제(학업과)와 신앙은 구별된 것이 아니다.

권면한 성경구절은, 사사기 41장 10절, 빌립보서 4장 13절, 학개서 2장 23절, 여호수아 1장 6-9절, 로마서 8장 34-35절, 누가복음 8장 22-25절을 사용하였다.

둘째로 부모에게 자녀는 위로와 격려를 필요로 하다. 오히려 자녀와 관계를 회복하거나 공고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자녀와 함께 기도해야 한다. 주일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격려해야 하고 본을 보여야 한다. 다른 부모들은 불안해하나 크리스찬 부모들은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갖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자녀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역할에 충실히 해야 한다. 자녀가 상전인 것 같이 행동해서는 되지 않는다. 자녀와 정기적으로 대화를 하고, 최소한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 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자녀를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 학업의 스트레스나 아니면 다른 문제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 분석

이상 상담을 통하여 나타난 내담자들의 경험과 아픔을 주제별로 분석하고 이러한 주제들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논하고자 한다. 먼저 분석의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 사례의 주제별 분석

본 연구자는 청소년들의 경험과 아픔을 유발하는 마음의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대표적인 주제를 분석한 결과 다섯 명의 학생들과 7가정의 상담을 통해서 분석된 자녀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 가장 많이 부딪치는 문제가 학업에 대한 중압감이었다. 학업에 대한 중압감이 스트레스가 될 때 학생들은 다양한 문제를 겪는 걸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제들은 아래와 같이 크게 정서적, 신체적, 위기상황의 3가지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① 정서적인 문제

학생들 또는 부모들이 학업에 대한 중압감을 경험할 때 정서적/감정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데 내담자들은 불안과 두려움, 우울증, 슬픔, 분노 등의

경험을 나누었다.

불안과 두려움

학생들은 노력을 해도 기대한 것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은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것은 자신감의 결여와 많이 연결되어 짐을 보게 된다. 학업에 관한 행동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은 학생의 삶의 다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보게 된다. 예를 들면, 어느 학생과 학부모는 다음과 같이 그들의 경험을 나누었다.

내담자: 제가 작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력이 늘지 않을 때, 한계를 느껴요.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예요. 목표는 홍익대인데, 늘 불안하고 두렵기만 해요. 매달 학원비만 60만 원이고 그 외에 자료 비까지 합하면 월 100만 원 이상이 드는데, 형편없는 제 성적을 엄마에게 또 내밀기도 두렵고, 제 성적표를 받아들고 또 울어버릴 엄마가 겁이나요. 그럴 때 마다 저도 방에 들어가 실컷 울다가 잠이 들곤 해요.

다른 내담자: 특히 수학공부를 나름대로 했는데, 점수가 나오지 않을 때 힘들어요. 그럴 땐 스트레스를 참고 기도도 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요. 그러나 체계 의욕이 없어요.

우울증

학업의 스트레스로 시달리는 학생들은 종종 우울증을 겪게 된다. 경우에 따라 우울증의 정도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의기소침, 삶의 의미 상실, 무력감 또는 이와 유사한 경험들을 나누었다. 우울증은 홀로 살면서 걸리는 질병이 아니라 함께 살지만, 잘 못 살기에 생긴다.

어느 학생은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내담자: 제가 선생님과 상담을 하기 전에 너무나 답답해서 정신과 의사에게 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저의 엄마처럼 우울증 초기 증상이라고 하였어요. 학교 공부는 체계 별 의미가 없어요. 따라가기 힘들고 흥미가 없어요. 이젠 가출도 더 이상 싫어졌고, 학교 가는 것도 싫어요. 모든 것이 무기력해요.

분노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에서 “독립심에 대한욕구 (seeking for autonomy)”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꼭 충족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학업에 대한 부담과 학교와 학원에서의 조여진 삶은 이러한 자연적인 욕구를 억누르게 된다. 어떤 학생은 자신이 이렇게 갖 허서 살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분노 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본질적인 불만족과 분노는 성적이 떨어지고, 좋은 학원에 갈 수 없고, 부모나 동료들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어느 학생은 아래와 같이 말했다.

내담자: 보통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7교시까지 정시 수업이 있고, 야자(야간 자율학습)는 저녁 10시에 끝나요. 아이들은 다시 학원에 가서 새벽 1시나 2시가 되어야 끝나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운동과 필요한 호신술등을 공부해야 하는데, 학교 측에 말하여 야자를 빼 달라고 해도 엄마가 듣지 않아요. 학원엘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영어공부도 다시 바닥이 됐어요. 제 환경에 화가 나요. 축구할 때만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어요.

② 신체적인 문제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분노하고 우울할 때 이러한 것은 대개 신체적인 문제로 나타나곤 한다.

상담했던 학생들은 주로 복통, 배알이, 탈모 과체중(비만)을 호소하였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내담자: 제 아이가 아마 시험 스트레스가 몸으로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복통과 위경련, 때로는 두통까지 겹쳐서 학교 양호실로 이송 되거나 아니면 택시에 실려서 병원으로 행할 정도예요. 때로는 ‘응급 환약’을 복용하면서 시험을 치를 때도 있어요. 거뜬되는 증상이예요.

다른 내담자: 제 딸은 연, 고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몸이 갑자기 불어서 과체중에 탈모증까지 생겼어요. 제 아들도 시험 때만 배알이로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지 못해서 고통이에요.

③ 위기상황

학업의 스트레스로 고통당하는 학생은 종종 위기상황(crisis situation)을 만듦을 하는데 본 연구와 관련된 내담자들은 자살 충동과 가출을 이야기 했다. 비록 이러한 내용이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들렸지만 본 연구자는 이들의 경험에 주목하며 필요시 학부모와 다른 주변의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어떤 학생은 자살충동과 가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이야기를 했다.

내담자: 저는 대책이 없어요. 실컷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곤 해요. 자고나면 좀 낫아져요. 극심할 때는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가끔 느끼게 되요.

다른 내담자: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집이 싫어서 자꾸 가출을 하는데, 학교 가는 날보다 안가는 날이 많을 정도로 했어요. 일 년이면, 6개월을 한 적도 있고, 잡혀 들어오면 또 나가고 그렇게 반복했어요. 나쁜 것 많이 했어요. 저보다 어린학생들 돈을 많이 빼앗았어요.

3) 성경적인 접근 방법

성경에서는 학업의 스트레스나 청소년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적 상담은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믿는다.

성경적 상담은 먼저 학업의 스트레스에 관련된 인간의 이해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춘다. 주의 깊은 대화와 분석을 통해 성경이 사람에게 대해서 그들의 독특한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고자 한다.

학업의 중압감에 시달리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현상적으로는 위의 3가지 범주 안에서 다양한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성경적 상담은 내담자들의 고통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자 한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신뢰가 쌓이게 된다.

성경적 상담자는 내담자의 아픔과 경험에 깊이 들어갔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임을 깨닫고 내담자가 이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성경이 내담자가 겪고 있는 불안, 우울증, 분노에 대해서 폭넓게 이야

기 하고 있음을 나누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아래의 주제들은 감정적/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영적인 문제이다. 성경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단지 여기에 연관된 성경구절을 찾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다. 성경적 상담은 이러한 문제들이 성경의 이야기와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가르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복음에서 이해하고 복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배우고자 한다.

아래는 본 연구자가 내담자들이 겪은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1) 두려움과 불안

학업에 고통당하는 학생/학부모들 만이 두려움, 불안, 우울, 분노를 겪는데 아니다. 성경안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역사속의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 모두가 경험한 것이다 (예 : 시편 102, ... , 예레미야, 엘리야, 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난관을 극복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먼저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 많은 학업에 스트레스를 받은 이들은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 우울 절망이 불신앙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들의 아픔을 듣고 싶어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진정한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신다(요 14). 베드로는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기에 우리의 걱정 근심을 주께 내 놓아야 한다고 말한다(벧전 5:6-7).

(2) 우울과 절망

시편기자는 한때 극심한 우울과 절망에 빠져있었다. 그때 마다 그는 하나님 안에 참 소망과 위로가 있음을 알고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시 42:5-6). 사도바울은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했을 때 극심한 우울과 절망을 피할 수 있음을 직적하고 있다(고후 4).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해지고 그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갖는다.

(3) 분노

분노가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도 죄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신다. 분노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분노가 분노하는 자의 마음을 들여다보게끔 한다는 것이다. 분노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의 기준과 방향을 보여준다.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학업의 스트레스에 있어서 분노의 대상은 대개 교사나, 동료학생, 부모, 그리고 자신일 수 있다. 과중한 학업의 스트레스가 불합리한 것일 수 있으나 마음에 악한 감정을 품는 것은 대부분 마음 안에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이다. 무엇보다도 학업의 성적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 있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있다. 많은 경우에 분노는 마음의 우상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나타난다.

(4) 마음의 우상

학벌은 한국 사람의 마음속의 가장 큰 우상중의 하나이다.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하나님보다 우선권(priority)을 학업에 둬서 신앙과 기독교인으로 세상을 보는 눈에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는 것보다 학원에 가는 것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이다.

어떠한 신자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이 되는 것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학업의 압박에서 자유해지고 우리의 한계를 알고 모든 것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성경적 관점으로 학업중압감을 유발하는 마음의 문제들이 대표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 우울증 절망감, 슬픔, 분노 우상 숭배 등으로 분석되며, 이는 부모들과의 상담을 통해 피상담자의 상태가 더욱 잘 파악되었고 당사자가 가족 구성원과의 신뢰를 회복하며 새로운 참된 자아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아쉬운 것은 비신자인 아버지나 어머니를 부모로 둔 청소년의 경우 믿음의 양육과 가정예배가 불이행된 점인데 만일 이러한 것이 행해진다면 총체적 상승작용으로 더 큰 효과가 있었으리라 보는

것이다. 덧붙여서 학교 담임선생님을 피상담자의 부모와 함께 방문하여 당사자를 위협하는 문제 상황을 알리고 간접적 지원을 부탁하여 자신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신감을 갖도록 되었다. 또한 전화통화, 문자통화, 그리고 교환편지의 방법을 사용하여 격려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성경적, 유기적 상담을 통해 청소년의 공동체성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경험하는 영성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 졌다.

Ⅲ. 닫는 글

청소년 영성교육에 있어서 성경적 상담학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성경적 상담학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바람직한 교회 활동과 공동체적 생활을 하는 데에 매우 유익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문제의 해결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더욱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본다면, 성경적 상담학은 교회 청소년 영성교육에 매우 유용한 기여를 할 것이며, 교회의 성장에도 필요한 것이다. 다만, 한국에서는 현재까지 청소년의 총체적 영성교육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여 이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앞으로의 연구는 보다 더 많은 임상사례가 나타나서 성경적 상담학의 유용성을 입증시키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어야 하겠다.

【 참고 문헌 】

- 김광률. “기독교인 부모의 영성과 영성형성.” 『기독교교육논총』 제17권 (2008).
- 김영민. “가정교회 사역을 통한 평신도 성경적 상담사역의 활성화 방안 연구.” 미간행박사학위논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2008.
- 김준수. 『마음의 치유: 참된 나를 찾아 떠나는 내면의 여행』.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6.
- 성미경. “교회 소그룹을 통한 상담사역.” 『성경과 상담』 제2권 (2002).
- 신덕용. “비행청소년에 대한 목회상담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한세대 신대원, 2001.
- 이금만. “교회교육: 이론과 현장의 새로운 만남을 위하여.” 『기독교교육논총』 제14권 (2007).
- 이정근 외 3인. 『비행청소년의 이해와 지도』. 서울: 성원사, 1987.
- 임명주. “총체적 영성교육: 대안적 기독교 교육으로서의 영성교육.”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 장화선. “영성교육의 내용과 실제에 관한 연구.” 『복음과 교육』 (2005).
- 장희식. “기독교 영성 이해.”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3.
- 전한중. “기독교 가정의 영적 활성화를 위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 1986.
- 정정숙. 『기독교 상담학』.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2002.
- 정주성. “칼빈의 영성: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중심으로.”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2004.
- 조은하. 『동전적 영성과 기독교 교육』. 서울: 한들출판사, 2004.
- 채규현. 『성경과 상담』 제1권. 한국성경적 상담학회.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2001.
- 포스터, 리처드. 『영적 훈련과 성장』, 권달천, 황을호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1판; 1995: 2판; 2004년.
- 피터슨, 유진. “옳은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왜 영성 형성은 필수인가.” 『목회와 신학』 서울: 두란노, 2005. 9.
- 황규명. 『상담과 목회의 실제』. 서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2000.

_____. “기독교 상담에서의 직면과 복음.” 『복음과 상담』 제4권. 서울: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2005.

Adams, Jay E. *Competent to Counsel*. Phillipsburg: Presbyterian Reformed Publishing, 1970.

_____. *Pastoral Counseling*. Grand Rapids: Baker Books, 1997.

Comiskey, Joel. *Groups of Twelve*. Houston: Touch Publications, 1999.

Zuck, Roy B. 『교회와 청소년 교육』,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7.

Neighbor, Jr. Ralph. *The Shepherd's Guidebook*. Houston: Touch Outreach Ministries Inc., 1992.

_____. *A Leader's Guide for the Cell Group Church*. Houston: Touch Outreach Ministries, 1992.

_____. *Where Do We Go from Here?*. Houston: Touch Publications, 2000.

Sutherland, E. H & D. R. Cressey. *Principle of Criminology*. New York: J. B. Lippincott, 1966.

Tripp, Paul David. *Age of Opportunity*. Phillipsburg: Presbyterian Reformed Publishing Co., 1997.

Welch, Edward T. 『성경적 상담이란 무엇인가』. 서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2000.

_____. *Addictions: A Banquet in the Grave: Finding Hope in the Power of the Gospel*. Phillipsburg: P & R Publishing Co., 2001.

Vincent, Thomas. 『성경 소 요리문답 해설』, 홍병창 역. 2004.

[후 주]

- 1) 참고, 임명주, “총체적 영성교육: 대안적 기독교 교육으로서의 영성교육”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1.
- 2) J. 아담스의 상담이론을 발전시킨 C.C.E.F. (Christian Counseling and Educational Foundation)의 상담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강의와 교재, 그리고 한국 성경적 상담학회의 발표논문 자료들이다.
- 3) 임명주, “총체적 영성교육: 대안적 기독교 교육으로서의 영성교육”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v. “사회가 물질만능주의로 흐르면서 기계화되어지고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 인간 및 모든 생명체에 대한 가치가 저하되는 모습이 된 것을 반성하고,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총체적 영성교육을 제안” 한다.
- 4) 정정숙, 『인간문제에 대한 상담학적 치유』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2004), 29f.
- 5) 모어러(Hobart Mowrer)가 주로 프로이드를 공격했다면, 폴 비츠(Paul Vitz)는 인본주의와 실존주의 심리학자들을 비판하였다.
- 6) 현 미국 기독교 상담의 갈등과 취약점들을 Edward T. Welch는 지적하기를 “미국의 기독교 상담이 심리학에 대해서는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성경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얕다는 것이고, 기독교 상담학의 관심사가 세속적 심리학에서 세속적 정신의학으로 옮겨진다는 것”이다, 황규명, 「상담과 목회의 실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서울 프로그램 강의교재, 2000년 1월); Edward T. Welch, *Addictions: A Banquet in the Grave: Finding Hope in the Power of the Gospel* (Phillipsburg: P & R Publishing, 2001).
- 7) Sutherland는 소년이 범죄에 빠질 소지가 많은 가정으로 첫째, 가정 내의 성원 중에 전과자, 알코올 중독자 또는 품행이 좋지 않는 자가 있는 경우, 둘째, 부모 중 어느 일방이나 쌍방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라도 친부모가 아닌 경우, 셋째, 부모가 무지하거나 기타 지각상의 결함으로 그 자녀를 적당히 지도할 수 없는 경우, 넷째, 판매, 과도(過度)의 간섭, 과도의 엄격, 방임, 질투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가정의 불화, 다섯째 인종, 종교, 관습 등의 상이(相異), 양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교육시설의 미비의 경우, 여섯째,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하는 실업, 저 수입, 맞벌이 부부 등이다. 그는 여섯 가지 중 하나 또는 수개가 복합되어 있을 때 청소년이 탈선에 빠지

- 기 쉽다고 지적한다, E. H Sutherland & D. R Cressey, *Principle of Criminology* (New York: J. B Lippincott, 1966), 172, 재인용; 신덕용, “비행청소년에 대한 목회상담연구” (한세대 신대원 석사학위논문, 2001), 16.
- 8) 후키미즈(Fukimizu)는 대중매체의 영향이 크다 하여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모방 등 어린이 유괴범들이 필름시청에 있어 가장 큰 자극을 받는다는 연구보고를 냈다. 설스키는 사람이 공격적인 필름을 많이 보면 공격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과 신문, 잡지의 과잉보도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정근 외 3인, 『비행청소년의 이해와 지도』 (서울: 성원사, 1987), 71f.
- 9) 로이 주쿠(Roy B. Zuck), 『교회와 청소년 교육』,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7), 12f.에서 재인용.
- 10) 한국갤럽, 1999.
- 11) 정정숙, 『인간문제에 대한 상담학적 치유』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2004), 51-53.
- 12) 신약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바울을 추천하는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된 배경에서 우리는 그를 격려한 한 사람을 잊을 수 없다. 그는 바로 “위로의 아들”로 격려자인 바나바이다. 참고, 사도행전 4:36f, 9:26f, 11:24-30, 12:25.
- 13) Lawrence J. Crabb, Jr.,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37-43; 정정숙, 『기독교 상담학』, 325.
- 14) 김영민, “가정교회 사역을 통한 평신도 성경적 상담사역의 활성화 방안 연구” (웨스트민스터 목회상담학 학위 논문, 2008), 51.
- 15) Thomas Vincent, *The Shorter Catechism Explained from Scripture*, 홍병창 역, 『성경 소 요리문답 해설』 (서울: 여수론, 2004), 25-30.
- 16) Edward T. Welch, “성경적 상담학의 특징”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목회상담학 박사과정 강의 노트, 2002년 1월); Jay E. Adams, *The Christian Counselor's Manual: The Practice of Nouthetic Counseling* (Nutley, N. 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77).
- 17) 정정숙, 『기독교 상담학』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2002), 51, 58f.
- 18) Ibid., 51.
- 19) 황규명, “성경적 상담의 기본 원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목회상담학 박사과정 강의노트, 2001년 1월).

- 20) Paul David Tripp, "Methods of Biblical Change," 69-70; "Homework and Biblical Counseling, Part 2",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Vol. 11, no. 3(Spring 1993), 6.
- 21) Paul D. Tripp, *Homework and Biblical Counseling*, Part 2, 6.
- 22) Paul D. Tripp, *Homework and Biblical Counseling*, Part 2, 6.
- 23) *Ibid.*, 113.

[Abstract]

A study on the Religious Guidance of a Youth Group's Spirituality
through Pastoral Counselling

Heeseung Ha

(Ph. D. Cand., Anyang university)

This study concerns that guiding youth group's spirituality through biblical counselling. Nowadays, the growth rate of Korean church decreases, the writer believes, one of its solution is that guiding the youth's spirituality rightly who is tomorrow's main church worker. Historically the pastoral counselling begins with human's creation. Here I will describe the history of pastoral counselling as well as its characteristics and tasks. Facing the decreasing church members, we should consider the methods of ministries of Korean church, which were focusing on one minister's skill, outward appearances such as size of buildings and church memberships. Nowadays a holistic spirituality draws our attentions; here its definition and practice is given. Also I will investigate characteristics as well as its facing problems of youth group. Teaching and counselling are main methods of guiding youth group's spirituality. Here biblical counselling practised with organic structure, which is consists of home counselling, and encouragements with sending text and exchanging letters. Heart Model, one of biblical counselling, is adapted and analysed with a successful case study. It is practised with methods of L.K.S.D.(Love, Know, Speak, Do).

Key Words : biblical counselling, organic counselling, youth group, Heart Model, L.K.S.D.(Love, Know, Speak, Do), spirituality.